

21세기 대학의 진로교육 방향

이 현 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post-doc

1. 들어가는 말

요즘 우리 사회는 취업 직전의 사람이나 현재 취업 중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너도나도 벤처기업 행을 소망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도 될 만큼 '벤처산업'에 대한 열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식이 결합된 기술의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한 경공업과 제조업 분야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전자산업, 지식산업 등 각종 첨단 산업들이 우리 사회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지식 창출이 국가 경쟁력에 대한 척도가 되고 자본이 될 수 있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회 및 산업현장의 계속적인 변화와 사회의 요구를 대학 교육이 제대로 수용할 때 대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모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졸업 후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덜 겪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대학 교육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기관별로 역할과 기능을 특성화 시켜 전문지식의 체계화와 전문화,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학

과 편제도 전문화, 특성화, 다양화의 방향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생들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진로교육 방향도 다변화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으므로, 21세기 대학의 진로교육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식기반 사회와 대학교육

일반적으로 지식기반 사회라고 하면 합의에 의해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며, 지식이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근원과 합리성의 근거가 되며, 사회에서의 지위 확보 등에 필요한 핵심 조건으로 기능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김정환(1999)은 '세계화, 정보화, 일의 형태와 기회, 일의 내용 변화, 문화적 범위와 사회생활 양식 등의 중첩, 지식의 생산과 사용이 환경과 생존에 위협, 지식을 다루는 체계와 강도의 변화, 지식의 폭발적 증가' 등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현대사회에서 지식이란 또 다른 문화적 자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지식기반 사회가 촉진

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교육과학연구기술부(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에서 수행한 델파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교육은 여전히 학교 출석을 의무화 할 것이지만 정규교육기관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즉 지식기반 사회의 학습장소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다원화 되고 가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장소의 다원화와 가상화(virtualization)는 통신매체와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쉽게 원하는 지식에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현청(2000)은 대학은 이제 '교육의 디지털 시대'를 맞고 있는 셈이며, 많은 대학들이 컴퓨터에 의한 재구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장소의 다원화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가상대학 혹은 사이버 대학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현재의 교육제도와 교육형태로는 미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내용과 학습계획, 그리고 학습방법 상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대학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이 졸업 후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 면에서 상이하다면 그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적응 기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습득하고, 이를 위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모해야 하므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예측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조사에 참가한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생태학, 환경공학, 유전공학, 생물공학 등의 자연과 기술에 대한 주제와 세계의 상호 의존성, 사회문제, 육아, 교육, 일의 세계, 직업시장, 외국 문화, 다문화 사회, 매체, 새로운 정보기술과 그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간과 사회에 해당하는 주제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즘 대학마다 강조하고 있는 실용적 지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영어 사용능력 강화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다국가 문화 이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어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졸업장을 주지 않고 수료증만

주기로 하는 등 외국어 교육의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하였고, 서울대학교의 경우 2000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에 미달한 20%의 학생들에게는 영어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어에 대한 일정한 소양이 없으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도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3학점의 영어과목을 신설하여 TOEIC 730점, TEPS 638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학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극단적으로 볼



때, 이제 영어를 못하면 대학 졸업장을 획득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용적인 지식 위주로 교육내용이 변화되면 그 교육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습계획과 학습방법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델파이 조사에 참가한 교육 전문가들은 학문 간의 연계와 연결을 주도하는 학습형태, 실제와 연관성을 갖는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형태, 다양한 집단과 팀 내에서의 학습, 매체기반 학습형태 등이 지식기반 사회에서 핵심적인 직업능력 학습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실현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도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문 간 연계 학습을 위하여 많은 대학에서는 새로이 학부제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에서 산·학·연 협동 학습형태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 대학내 벤처 동아리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통신과 매체,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성장한 지식기반 사회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와는 달리 또 다른 위험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즉, 매체의 확장과 정보의 세계적 유통의 결과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와 수단이 배가되었지만, 지식 획득의 방편으로서 창의적 정보와 통신매체를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질수록 매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지식 격차를 증가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각 가정과 대학마다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정보탐색 능력을 배양하고, 각 세계를 내집 안방 드나들 듯 자유롭게 넘나들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학마다 다양한 강습을 유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의 교수-학습을 실시하는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정보화 과목을 신설하여 실제 교육과정 상에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정보처리기사, 정보검색사,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등과 관련된 국가공인 민간시험을 통과하면 학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정보인증을 받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하여 대학생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획득 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대학교육에서 정보화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대학 진로교육의 방향

사회·경제적인 요구와 개인의 요구에 따라 대학교육은 보편화·대중화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교육의 기능은 소수정예 교육에서 보편대중적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과거 소수계층에 의해 대학교육이 독점되던 시대에는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엘리트 정예 교육을 지향했으나 이제 대학교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전문 지식으로 체계화시키고 학문 분류체계를 특성화·다양화 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산업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개발해 가는 모든 형태의 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교육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경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직업세계의 전문화, 특성화, 다양화에 걸맞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도 여러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진로교육 목적도 이러한 대학교육 기능에 걸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충기(1989: pp267~268)는 대학에서의 진로교육 목적을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적 전공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전문직업과 연계성 있는 지식과 특수 기술을 준비 개발시키고, 장차 피고용인

으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 관계 형성, 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 직업관 및 직업윤리의 이해와 습득, 인간교육, 가치관 확립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들 이외에도 '다국가 문화의 이해 능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대학의 진로교육 목적에 덧붙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세계화에 직접 노출되어 있으며 취업 후에도 세계화를 주도해 나갈 주인공들이므로 이와 같은 다국가 문화 이해능력은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와 미통상성, 교육성, 노동성, 국립기초교육원, 소기업행정원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21세기 직업을 위한 21세기 직업능력(21st Century Skills for 21st Century Jobs)』에서는 사업주들이 다양한 직업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직업능력이란 기초능력, 전문적 능력, 조직적 능력, 회사 특수적 능력 등의 4가지로 들고 있는데 기초능력은 3R's를 바탕으로 한 기능으로 모든 직업에서 요구되는 학문의 기초적 능력을 말한다. 전문적 능력은 대부분의 일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컴퓨터 기능, 정보와 통신 제조기술 등의 이용 능력을 말하며, 조직적 능력은 직원-고객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 분석 능력, 문제해결 및 창의적 사고, 인간관계 능력, 협상 및 자기경영 능력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회사 특수적 능력은 각 회사와 특수하게 관련된 지식과 기능에 대한 능력을 의미한다.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와 같은 직업 능력은 국경과 관계 없이 모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로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지식의 폭발적 증가는 지식의 생명주기를 짧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화는 인력 수급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대학 단계에서부터 사회에 진출한 후에 이르기까지 자기 개발을 늦추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둘째,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기본적 능력으로서 습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컴퓨터는 가치 창출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요즘은 문서작성에서부터 정보사냥에 이르기까지 컴퓨터가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어 학습을 통해 다국가 문화의 이해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외국어 가운데 특히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영어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국어와 함께 영어의 공용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영어에 대하여 상당히 베타적인 자세를 취해 오던 프랑스에서도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죽은 영어교육'이 아닌 '살아 있는 영어교육'을 위하여 중등학교와 대학 차원에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로만 진행되는 강좌가 개설되는가 하면, 영어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졸업장을 주지 않기로 한 대학들도 생기고 있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 즉 심리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학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장일지라도 학생 개개인의 정의적 특성들 또한 개발할 때 균형 잡힌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 또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더 이상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 개개인이 소유하고 전달하는 지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것이다. 심리사회적 기술이 지식기

반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미래사회는 개인주의가 더욱 팽배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직장생활과 사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격차들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복잡한 사회적 준거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태도를 갱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 태도, 자기자신의 성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려는 의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한 민감함과 관용 등은 모든 학교교육을 통해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할 능력들이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 1999: 74).

4. 학부제와 대학 진로교육의 방향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이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점점 학문이 세분화되고 지식이 성장되어 갈수록 학문 간 협력의 필요성은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전공영역의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혼자서는 방대한 양의 지식에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융통성 있게 서로 연계되고 통합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미래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은 고등교육 기관별로 역할과 기능의 특성화를 이루고, 학과편제의 전문화와 특성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체제가 개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체제의 개편은 다양한 차원에서 지식을 끌어내기 위한 학문 간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문 간 연계가 학부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고등교육실 대학지원총괄과 내부자료(1996)에 따르면, 학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국·공립, 사립대학들은 전공선택의 기회를 확대(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하는데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유사 전공학과들의 통·폐합과

졸업생의 취업 기회 확대, 다학문간 협동 연구의 확대 및 활성화 추진 등의 순서로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부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세분화 되어 있는 학문영역의 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면서 교과과정의 중복 편성 및 학과영역별 폐쇄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제약 및 졸업자의 취업 제한을 해소하고 중복 투자를 배제하여 제한된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이현정 외, 1997)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도입한 학부제가 실제 운영 중에 전공별로 학생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기전공과 비인기전공 간에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학과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학년에서 전공을 정할 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전공의 선발 당락 기준을 학점으로 함에 따라 학생들 간의 학점 경쟁으로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점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없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전공영역에 할당되어 3, 4학년을 허송세월 하거나 제수를 고려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공영역의 기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알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학부제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지게 된다. 또한 학생의 선택에 의한 전공별 학생 편중 현상은 사회적 필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21세기에 대학이 나아가야 할 다학문적 접근과 학생 선택 위주의 다전공 복합 학문의 경향을 반영한 학부제는 미래에 필요하게 될 핵심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과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통해 다학문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의 선택에 의한 다학문적 접근과

다전공 복합 학문의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정부와 미통상성, 교육성, 노동성, 국립기초교육원, 소기업행정원 등이 공동으로 '21세기 직업을 위한 21세기 직업능력(21st Century Skills for 21st Century Jobs)'을 예측하면서 1996~2006년 사이의 고용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업별 고용 변화를 보면 앞으로 미래에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게 될지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관리(118%), 컴퓨터 엔지니어(109%), 시스템 분석가(103%)의 고용 증대가 현재보다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비단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래는 컴퓨터관련 정보, 전자계통의 직업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 분야가 각광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요구되는 이러한 핵심적인 직업능력과 고용 변화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상의 변화가 기대된다. 요즘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 하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교육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본다.

첫째, 학부제의 실시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항은 전공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제 하에서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사항은 직업지도(vocational guidance)라기 보다 진학지도(educational guidance) 혹은 학업지도 위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진학지도가 직업지도의 일부가 되겠지만 직업 선택에 앞서 학생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파악하고, 이에 알맞는 전공은 무엇인지 전공선택과 관련하여 지도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수강해야 할 교양과목, 일반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등 주어진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학부제 하에서는 학생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3학년에 정하는 전공영역이 자신의 적성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도 있고,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예컨대 전공선택이라는 교육적 문제까지 더하게 되면 이중적인 고통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연구소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담당교수 및 상담 인력들의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센터 및 정보망의 구축을 통해 각종 첨단 산업과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진로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별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개별 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실시해야 한다. 각 개인별 정보망의 구축은 대학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국가 차원에서 국민 PC 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정보통신망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어 첨단 지식과 정보 활용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 자체의 재정적 뒷받침에 의한 것이든 국가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에 의한 것이든 대학과 개인의 첨단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이들 분야에 대한 인력 개발 지향의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만약 정보통신 시설 구축이 미흡한 대학이라면 학교에서의 학습을 모든 시설들이 구축된 현장학습(on-the-job-learning)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교내 교수진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을 실시하여 실제와 연관성을 가진 학습을 실시할 수도 있다.

넷째, 대학교육 단계에서부터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배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기업·국가 차원에서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갑영(동아일보, 2000년 3월 13일자 7면)은 대학의 연구와 기업의 벤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대상이 되고, 투자한 기업에 연구결과 활용권을 우선적으로 주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기업은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벤처의 발굴을 시도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정착되어 대학교육에서부터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학부제 하에서 자신의 전공선택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대학에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안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의 보완을 위해서라도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연구기관 등을 통해 보다 심화된 실무위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고 졸업 후 관련 기관에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 때 대학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관련 과목들의 학점을 인정해 주어 특정 프로그램의 이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 특수훈련 프로그램인 The Salado Community College Educational Partnership Program은 치과위생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학생들에게 최신식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졸업생 전원은 치과위생사로 등록될 수 있다. 물론 이 협력 프로그램은

전문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정규 4년제 대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맺는 말

위에서 다룬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대학 진로교육의 방향과 학부제 하에서의 대학 진로교육의 방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갖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하루가 다르게 출현하는 새로운 지식에 쉽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 및 개인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여 다국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세계 공용어인 영어 구사 능력은 취업뿐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각종 첨단 산업과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에게 정보관련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의 활용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은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다. 요사이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찾고 제공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컴퓨터이므로 많은 대학생들은 이미 컴퓨터 활용에 익숙해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매체의 활용능력을 국가인정시험을 통해 인증받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학문분야의 강조 일변도인 진로지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적 동기를 자극하는 진로지도 또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서부터 실용적인 학문을 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학교육 보다 학문적인 동기에 의한 대학교육이 경우에 따라서 더 경쟁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시기에 누구나 경험하는 가치관의 문제, 성격 및 적성에 관한 문제, 학업성적 문제 등 진로교육의 본래적인 성격들에 관한 지도는 변함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부제 하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전공선택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적응의 각종 심리적 문제와 인간관계의 부조화 등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1999),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 독일 교육연구부의 '델파이 조사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99-3.

김정환(1999), "신식기반 사회에서의 교육심리학 연구의 방향", 교육심리학연구, Vol. 13(4), pp353~370.

김충기(198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이현청 외(1997), "대학 학부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RR 97-4-151.

이현청(2000), 「21세기와 함께 하는 대학」, 서울: 민음사.

정갑영(2000. 3. 13), 동아일보 7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1999), "21세기 직업을 위한 21세기 직업능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99-1.

이현주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post-doc. 과정중이며, 고려대 교육학과 강사로 출강중이다. 연구논문으로는 "고등학생의 진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등이 있다.